

우수영강강술래 스쿨 개설·창작극 개발

해남군 보존·육성 중간 보고회...관광지 연계 프로그램도

“강강술래/ 강강술래/ 달 떠 온다 달 떠 온다/ 강강술래/ 동해동창 달 떠 온다/ 강강술래 저 달이 누 달 강강술래...”

해남군이 지난 2009년 세계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해남 우수영 강강술래’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과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14일 군청 회의실

에서 ‘해남우수영 강강술래 보존·육성을 위한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 용역을 맡은 목포대 산학협력단(대표 나승만)은 강강술래의 전승과 활성화를 통해 문화적 정통성을 확보하고, 강강술래의 전승 보존과 안정적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민속놀이·민요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강강술래 스쿨’ 운영 ▲학교교

육을 통한 강강술래의 활성화 ▲축제를 통한 강강술래의 세계화 등 육성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우수영 주변의 관광지와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과 기반시설을 통해 민속관광 기행지화해 나가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명랑앞계 수상무대를 활용해 창작극 술래 수상극을 개발하고 이순신 장군과 명랑대첩의 역사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역사순례길(술래길) 조성 등 특성화 전략방안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군은 강강술래의 본고장으로서 지난 1976년 대통령상과 2009년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된 해남 우수영 강강술래의 전승 보존과 육성을 위해 용역에 나섰다.

해남 우수영 강강술래는 이순신 장군이 명랑대첩을 일궈낸 문내 우수영에서 대대로 전승·발전되어 오고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 우수영 강강술래는 1965년 ‘중요 무형문화재 8호’로 지정돼 현재까지 보존돼 오고 있는 중요한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해 해남 강강술래가 세계적인 무형문화유산으로 전승·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무안 남악보건지소 삼향출장소 개소

1만8000여명의 남악 주민건강을 돌보는 무안군 남악보건지소가 최근 삼향을 남악출장소내에 문을 열었다. 남악보건지소는 150㎡규모로 일반 진료실, 한방 진료실, 물리 치료실, 숙소 등을 갖췄다. 남악보건지소는 BCG·일본 뇌염·B형 간염 등 영·유아 국가 필수예방



접종 7종을 비롯해 일반진료와 임신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은 현재 2명(공중보건의·간호사 각 1명)인 의료인력을 오는 5월에 2명을 보강, 한방과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현재 하루 평균 100여 명의 주민이 진료를 받고 있

함평 농어촌공, 농업 시설물 정비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지사장 오영록)는 겨울철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함평지사는 관내 농업기반 시설물(9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정비와 함께 겨울낙시 방지 예방 홍보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관내 읍·면 지역을 순회하며 겨울철 안전관련 수칙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집중적인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영록 지사장은 “주민들의 의식 속에 안전사고 실천운동을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내고향 물살리기 운동을 병행 추진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과 생산에 기여하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황운희기자 hwang@

진도 관광산업 민간이 주도

관광진흥협 창립...본격 활동

진도군 관광산업 육성사업이 민간 주도로 추진된다.

진도지역 관광산업 종사자와 민간 단체들은 최근 ‘진도관광진흥협의회’ 발기인 대회에 이어 이달말께 창립총회를 열어 정관과 사업계획을 의결하고 임원을 선출한 뒤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진도 관광진흥협의회는 문화원, 문화관광해설가협회, 숙박·음식점·운수·낚시업계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진도 관광진흥협의회는 앞으로 관광진흥정책 수립과 관광사업 추진 등을 주업무로 활동할 계획이다.

특히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광 종사자의 교육 및 안내소 운

영, 관광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진도 관광진흥협의회는 관광산업 발전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의 연계와 협력·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관광산업과 관련된 민간 단체가 주축이 돼 설립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부분의 역량 강화와 자율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진도군은 ‘관광진흥협의회’ 구성과 함께 ‘문화예술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설치, 문화예술인들에게 진도 문화·예술의 방향 제시와 시책 발굴을 맡길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 새 얼굴

“남악신도시 등 성장동력 확충 최선”

윤성호 무안부군수

“600여 공직자들과 함께 ‘도청 1번지’ 무안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윤성호(57) 무안군 부군수는 “한·중 국제산업단지, 무안 국제공항, 남악신도시를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수축산업과 지역경제의 활력있는 육성,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열린 행정, 소통행정을 통해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는 새무안 건설에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무안 출신인 윤 부군수는 지난 1974년 무안군청에서 공직을 시작한 후 전남도 친환경육성담당, 전남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 등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김영신(56)씨와 사이에 1녀를 두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전 북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해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주민들이 경로당에서 5m 규모의 땃방석을 만들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땃뚝 우리·왕글지리 등 사라져가는 짚공예품을 만들어 연간 6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kwangju.co.kr

“내장산 리조트 명품 만들자”

정읍시-관광공사 발전방안 협력 논의

정읍시가 내장산 리조트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생기 정읍시장과 이창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지난 14일 오찬회동을 통해 내장산리조트 조성과 관련,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명품 리조트로 조성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김시장은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리조트조성사업이 명품 리조트가 되기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관광공사가 정읍의 관광자원인 내장산을 비롯한 정읍시 설화, 백제정촌현 조성사업, 동학농민혁명, 소싸움장 건설 등 제반 자원들을 연계해 타지역과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리조트로 조성하는데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리조트조성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참사장은 “시와 관광공사가 적

극 협력해 빠른 시일내에 액션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장산리조트 조성사업은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정읍시 신정동·용산동에 158만7074㎡(48만평) 규모에 골프장, 펜션, 스파파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정읍시 333억원 ▲관광공사 440억원 ▲민자 2367억원 등 총 사업비 3140억원이 소요된다.

시는 지난 2003년 한국관광공사와 개발협약을 체결하고 2006년에 관광지 변경지정 및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후 2007년 4월에 내장산리조트 기반 시설공사 첫 삽을 떴다.

현재 내장산리조트에 투자를 확정 한 기업은 KT&G사로 450억원 규모의 연수원을 짓기 위한 부지 11,660㎡를 30억원에 계약을 마친 상태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s@

“새만금 환경 용역 외압 의혹”

부안주민들 관련자 처벌 감사 청구키로

부안 주민들이 변산 해수욕장 침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새만금 사업시행자와 관련 공무원을 처벌해달라는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변산 주민들은 “최근 한국농어촌공사가 내놓은 ‘새만금 영향해역 해저 지형변화 연구용역’ 결과가 당초 목적과 달리 새만금 간척사업이 변산 해수욕장 환경 변화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는 데 실패한데다 용역과정에 외압 의혹까지 든다”며 “현지주민과 관광객 등을 상대로 연대 서명을 받아 다음주중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공익감사는 특정사안이 공공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00명 이상 주민이나 시민사회단체가 청구토록

했다. 감사원은 30일안에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짓고, 착수하면 60일 이내 결과를 내놓는다. 농어촌공사는 연구용역 착수 4년 만인 지난달 17일 주민 설명회를 갖고 “새만금 방조제를 쌓은 뒤 변산해수욕장 침식 현상이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만금 방조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규명하지 못했으며 ‘아마도 원인중 하나에 속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애매한 결론을 냈다. 연구용역은 농어촌공사 의뢰로 산하 농어촌연구원이 주관하고 군산대 일부 교수가 참여했다.

윤선호 변산지역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새만금 개발의 당위성만을 위해 논점을 왜곡한 연구용역이란 게 주민들 생각이다. 특히 용역과정에서

정부부처와 농어촌공사 등이 연구진에게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왜 명확한 결론을 못냈는지, 외압은 없었는지를 규명하고, 외압이 있었다면 관련자들을 처벌해줄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농어촌공사보다 앞서 또 다른 새만금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거나 진행중인 국립 해양조사원과 한국해양연구원의 대응방식과도 많은 차이가 있다는데 주목했다.

해양조사원과 해양연구원은 연구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반면 농어촌공사는 주민 설명회까지 열고 도 요약보고서 배포는커녕 주요 측정값을 묻는 질문조차 ‘모르쇠’로 일관해 반발을 샀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 장자도에 ‘바다숲’

道, 1억2천만원 투입 잘피 군락지 조성

군산시 육도면 장자도 해역에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지 역할을 할 ‘바다숲’이 조성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서해형 바다숲 잘피 조성사업 대상지로 군산시 장자도를 비롯해 충남 무창포, 인천 백령도 등 3곳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올해 1억2000여만원을 들여 장자도 앞바다에 인위적으로 ‘바다숲’인 잘피를 이식해 밀집 군락을 만들어 바다숲을 조성하고

파도막이 등을 설치해 어류와 조개류, 갑각류 등 수산생물의 산란과 서식을 돕기로 했다. 잘피(해초)는 다년생 해산식물로 해조류와 달리 모래나 펄에 뿌리를 박고 살면서 광합성을 해 산소를 만들어 주고 작은 어류들에게 숨을 곳을 제공해준다. 또 먹이가 되는 다양한 생물들과 플랑크톤들이 많아 물고기들의 산란장과 서식장으로 좋고 갯벌의 침식을 막아주고 육지에서 유입되는 오염



물질을 정화하고 적조 발생도 억제하는 유익한 식물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바다숲이 조성되면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인 생태계 복원뿐 아니라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효과와 관광객에게는 신선한 볼거리제공과 체험 등을 통한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주민소득과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궁석기자 nogusu@